

‘영화와 사회를 위하여’ 동아리 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[동아리 명칭]

1. 본 동아리는 ‘영화와 사회를 위하여’라 하고 편의상 ‘영사위’라고 해도 가능하다.

제 2조 [목적]

1. 본 동아리는 영화 제작 및 감상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[동아리 소재]

1. 본 동아리는 송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소속 정동아리이다.

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

제 1조 [임원진]

1. 본 동아리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관리, 서기, 총무, 홍보로 구성한다.

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

1. 본 동아리의 회장, 부회장은 동아리 부원들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고, 투표 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회장, 부회장이 된다.

제 3조 [임원진의 임기]

1. 회장, 부회장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, 최대 2회 연임이 가능하다.

2.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한 학기로 하고 최대 4회 연임이 가능하다.

제 3장 회원

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

1. 본 동아리의 회원 자격은 송실대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.

제 2조 [회원의 가입]

1. 본 동아리의 기존부원은 학기 시작 후 한 학기 회비를 낸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,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일 이후 7일이 지난 날 23시 59분으로 한다.

제 3조 [회원의 탈퇴]

1. 본 동아리 임원에게 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를 할 수 있다.

2. 다음 학기에 시작 후 당월이 지나기 전,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탈퇴로 간주한다.

제 4장 회의

제 1조 [임원 정기 회의]

1. 본 동아리의 임원 정기 회의는 월 1회 진행한다.

제 2조 [총회]

1. 본 동아리의 총회는 학기 당 1회 진행한다.

제 5장 재정

제 1조 [수입]

1. 본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[동아리 활동 지원, 장비 구입, 동아리방 관리, 동아리 정기 행사 준비]에 사용된다.

2. 위 항에 명시되지 않았지만, 명시된 항목에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동아리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.

3. 회계를 월 1회 본 동아리방 게시판 또는 본 동아리원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다.

제 2조 [회비]

1. 본 동아리의 회비는 학기 당 25,000원으로 한다.

1) 단, 회장의 재량으로,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, 임시로 학기 당 회비를 10,000원으로 할 수 있다.

2. 기존부원이 재등록하거나 신규 가입하려는 학기의 학적이 휴학일 경우, 해당 학기의 회비를 무료로 한다.

3. 신규가입 이후 총 활동 기간이 2개 학기가 넘은 4학년 학생의 경우, 해당 학기의 회비를 무료로 한다.

제 3조 [결산보고]

1. 본 동아리의 회장은 총회에서 담 학기의 결산보고를 한다.

2. 동아리부원의 요구가 있을 시, 당일 이내로 회계내역을 공개한다.

제 6장 동아리 등록

제 1조 [등록]

1.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제 7장 징계

제 1조 [대상]

1. 본 동아리의 징계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1) 동아리 부원에게 도의적으로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, 금전적 피해를 끼친 자.

2) 동아리 내에서 일어난 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.

제 2조 [징계절차]

1. 본 동아리의 징계대상이 된 자는 다음 징계절차를 따른다.

1) 임원진 회의를 통해 징계대상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고, 해당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징

계 예정임을 공지로 한다.

2) 본 동아리 부원으로 대상한 회의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징계가 확정될 시, 동

아리 내에 공지 후 퇴출을 시킨다.

제 8장 부칙

제 1조 [회칙 발효]

1.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1) 초안 [2020.02.07]

2) 1회 개정안 [2022.03]

제 2조 [회칙 개정]

1.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 권한은 본 동아리 회장이 가진다.

2.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회장이 임원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,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

회에서 동아리 전체 부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투표를 받아야 개정할 수 있다.